

필리핀의 파렛트 사용, 생산, 표준화에 관한 보고서

Bureau of Product Standards(BPS)
Ann Fernando / Trade Industry Development Analyst

1. 소개(필리핀에서의 파렛트 사업)

필리핀에서 산업제품과 소비재를 생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적의 장소에 좋은 재화를 얻는 것으로 말한다. 불행히도 물류시스템이 없이는 고객 서비스를 최대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없다. 필리핀에서는 오늘날 산업에서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것은 적어도 유통단계에서 자원의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떨어줄 것이다.

최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비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의도와 함께 최종 사용자 또는 고객에게까지 제품을 주의하여 인도하고 운송 중에 제품에 손상이 1퍼센트도 가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리핀 산업체들은 그들이 포장, 운송장비와 함께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고 기업들간 유통 체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파렛트와 관련하여 제품의 유통, 보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해 왔다. 그것은 국제 경쟁력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이다.

2. 필리핀에서의 파렛트 사용

초창기 코코넛껍의 풍부한 공급을 통해 필리핀 산업체에서 목재 파렛트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필리핀 산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파렛트의 가장 오래된 형태로 여겨지고 있다.

목재 파렛트의 비용 상승과 저하된 질 그리고 비효율성으로 인해 플라스틱제 파렛트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올해 초 유닛로드 시스템을 위한 파렛트 관련 제품 표준 사무국 파렛트 기술 위원

회에 의한 최근 조사에 의하면, 목재 파렛트는 그림 1에서 보듯이 시장 점유율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식품, 음료, 의약품 그리고 포장 산업계에서 목재 파렛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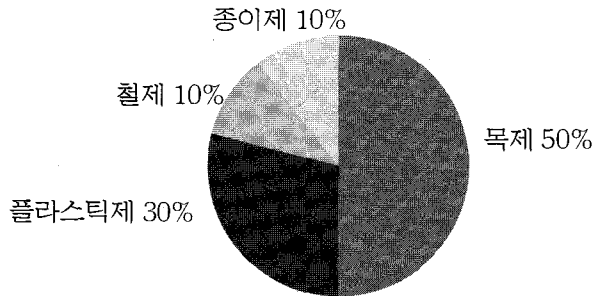


그림1. 파렛트 시장 점유율

자원의 사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파렛트 사용자들은 재활용, 일관된 품질, 내구성 및 위생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수년간 거듭해 오면서 필리핀에서는 3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플라스틱 수요가 증가 하였다..

필리핀에서 철제 파렛트는 일반적으로 의약 업계에서 사용된다. 철 소재를 쓰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들고, 결국 파렛트 값이 비싸진다. 산업과 소비재 제조사 중 10% 이상이 철제 파렛트를 쓰고 있다.

반면, 종이 파렛트는 다루기에 가볍기 때문에 수출 업체들이 사용한다. 시장 점유율 10%를 유지하고 있는 종이 파렛트는 일반적으로 일회용이고, 필리핀의 환경 문제에 확실한 해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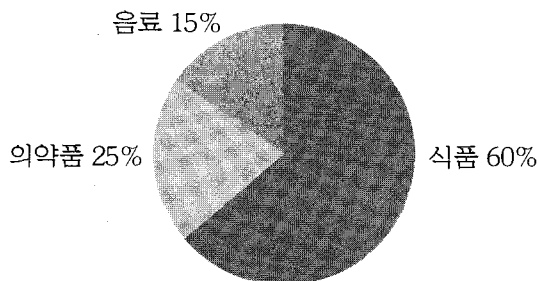


그림2. 필리핀의 파렛트 사용 시장 분포

3. 필리핀에서의 파렛트 제작

지역당 최소한 10군데의 확인된 제작처에서 필리핀 산업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매년 50만 개가 넘는 목재 파렛트를 만들고 있다. 이 중 60%가 국내에서, 40%가 수출용으로 쓰이고 있다. 필리핀에서 제작되는 평면 파렛트 중 가장 오래된 형태인 목재 파렛트는 부드럽거나 중급 경도를 가진 나무로 만들어 진다. 오늘날에는 탄자일, 아비통, 라우안과 또다른 과실수 등 여러 종류의 나무로 파렛트를 만든다.

지난 1980년대 하반기부터 필리핀에서의 목재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목재 파렛트에서 플라스틱제 파렛트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샌미겔(San Miguel Corporation)이 1993년에 맥주와 콜라 파렛트를 플라스틱으로 만들면서 플라스틱 파렛트 사용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1985년부터 플라스틱제 파렛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샌미겔이 그들의 조건에 가장 잘 맞는 디자인인 한국 내쇼날 플라스틱의 디자인을 얻기까지 8년이 걸렸다.

목재 파렛트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품질이 급격히 나빠질 뿐만 아니라 제작비도 많이 들어서, 오늘날 많은 기업에서는 좋은 품질이 오래 지속되고 재사용할 수 있으며 원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 파렛트를 선호한다. 필리핀에서는 밀도가 높은 폴리에틸렌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제 파렛트가 긴 내용연수를 가지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필리핀에서는 3개 이상의 제조사가 매년 거의 50만 개의 플라스틱제 파렛트를 독점 제작하고 있다.

필리핀에는 한 개의 확인된 제조사가 철제 파렛트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원료 값과 제작비가 높기 때문에 그 가격도 비싸다.

필리핀에서 파렛트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파렛트 제조사들은 파렛트 렌탈에도 또한 손을 뻗치고 있다.

필리핀에는 표준 파렛트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과 소비재 제작처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파렛트가 만들어졌다.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파렛트 규격은 다음과 같다.

길이 x 너비 x 높이 (mm)	산업재 와 소비재
940 x 940 x 140	음료
1100 x 1100 x 150	의약품/포장
1200 x 1000 x 150	의약품
1200 x 1200 x 140	음료
1200 x 1200 x 50	식품/포장
1830 x 1830 x 123	식품
1219 x 1219 x 165	포장
915 x 915 x 130	음료

4. 필리핀에서의 파렛트 표준화

무역 산업부의 생산품 표준 사무국(BPS)은 ISO 에 의해 공인된 필리핀의 국가 표준 담당 기관이다.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파렛트 국제 규격화 추진을 위한 회의가 지난 2002년 1월에 일본의 동경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서 필리핀은 효과적인 물류 시스템의 중요성과 물류 배급/저장 시스템에 있어서의 파렛트의 역할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필리핀에서는 국내 파렛트 표준화를 담당할 기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우선, BPS는 일반 기술 위원회 대신에 컨설팅 담당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쌍방향 기술 위원회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마침내 66차 기술 위원회, 일관 수송 파렛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국제 표준화에 활발히 참여하기 위하여 BPS는 ISO/TC 51과 그 경영 그룹 2, 4, 6 과 7에 참여 위원으로 등록했다.

파렛트 규격화에 있어서의 문제와 제약

- 변화에의 저항
- 기존의 1/2차 포장법의 영향
- 변경/수송 비용
 - 파렛트
 - 지원 시스템(창고, 랙, 적재트럭, 생산라인)
- 완전성 테스트 시설 구비
- 기술 돌파구
 - 목재 종류의 검수
 - 목재 관리